



# 정교회주보

제2534호  
2025년 7월 20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 마태오 제6주일 엘리아 예언자 (제5조 • 조과 복음 6)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예언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야고보 5,10~20 (봉)545
- 복음경 : 마태오 9,1~8 ..... 11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야고보 5,15)

### 사진 설명

## 성당 내부 벽화

정교회에서 성당 벽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학적·영적 의미를 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벽화는 성서 이야기와 천사들, 성인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신앙의 진리를 전달하는 '성스러운 책'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창문'이나 '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벽화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성인들과 교제하게 한다.

한편, 벽화는 예배 공간을 거룩하게 만든다. 예배 중 신자들은 벽화 속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들과 영적 교감을 나누며, 신앙의 본질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벽화는 교육적 도구로도 사용되는데, 성서의 주요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모님, 성인들의 삶과 신앙의 모범을 성화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교리와 신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사진은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벽화 중 일부이다.

# 영적 투쟁으로 죄 사함

한의원 알렉산드로스 신부

어떤 수도자가 한 영적 수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식도 게을리하고 기도에도 무관심하며 예배도 멀리하고 욕심껏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며 서로의 이익 관계로 다투고 날마다 헛된 보증과 맹세를 하면서 타락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은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으므로 성체성혈을 영접하는 데 문제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수도자들은 금식과 철야예배를 엄격히 하고 메마른 음식을 먹으며 육적인 즐거움을 멀리하면서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영적 수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아주 잘 지적하였소. 세상 사람들은 늘 죄짓고 죄의 늪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무엇이 타락인지조차 알지 못한다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들인데,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고 싸울 필요가 어디 있겠소?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무지함으로 인해 타락의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서 의식조차 하지 못해 극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못한다오. 그러나 수도자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탄이 그들을 죄짓게 하려고 영적, 육적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며 힘들게 하고 있소. 그래서 수도자들은 사탄과 싸우면서 어느 때는 승리하고 또 어느 때는 패하고 넘어지면서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그대나 내가 수도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수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오. 위대한 교부들과 고행자들 그리고 은둔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로부터 깨달은 그들

의 바른 가르침을 오늘날 들을 수 있는 것이오.

예수님께서서는 거짓말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음심을 품고 여자를 봐도 간음한 것이라 하셨으며,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남을 비난하면 곧 자신도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했소.

그러면 과연 거짓말을 전혀 해 본 적이 없고 음심을 품고 여자를 쳐다본 적이 없으며 이웃에게 화를 내 본 적이 없고 남을 비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소?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회개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므로 형제여, 이것을 잘 알아야 하오.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부당함, 비웃음, 조롱을 당해도 인간적인 변명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죄를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오.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화려한 의복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의 은총은 죄를 깨닫고 죄와 투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전제로 사랑을 베푸시어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밖에 그를 도와준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안심하여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마태오 9,2)하시며 영적, 육적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죄와 투쟁해야겠습니다.

# 내가 다니는 성당이 성장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요한 신부 씬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지난 주보에 이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기계를 잘 안다면, 성당의 방송팀에서 돕거나, 홍보, 소통을 담당하는 일을 함께 해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을 잘 꾸리고 행정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면, 성당의 여러 가지 위원회 등에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손재주가 좋다면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편집하는 일을 잘한다면, 교회가 발행하는 주보나 정기간행물, 신학 잡지 등과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 등에 글을 쓰고, 편집하고, 적절한 문구를 만들어 넣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답거나 음악을 잘 알거나 그림에 관심이 있거나 예술적 소질이 있다면, 성가대에 참여하거나 어린이, 학생, 청년, 교인들에게 성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화를 배워서 이콘을 만들고 교회의 거룩한 예술 활동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런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병원이자 요양원, 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홀로 외로이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큰 위로와 힘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 만약 요리에 관심이 있고 음식을 잘한다면, 성당에서 식사 준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와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곧 “사랑”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일을 포함하여 우리가 우리 성당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창의력과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축복은 덤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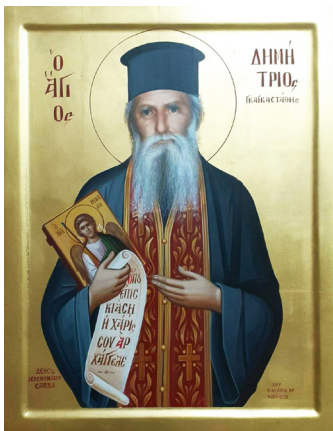


##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24일(목) 축일을 맞는 춘천 성당에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리스 성인의 중보로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님과 모든 신자가 영적 생활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당이 되길 기원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7월 24일(목)  
성 크리스티나 대순교자  
성 보리스 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성 디미트리오스 가가스타티스 사제)

### 새로운 성인 시성

지난 7월 9일, 세계 총대주교청 공의회 결정으로 디미트리오스 가가스타티스 사제(1903-1975)가 교회의 새로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디미트리오스 성인은 그리스 출신의 기혼 사제로 아홉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한 성인은, 지극한 겸손, 끊임없는 기도, 남 모르게 하는 자선 활동을 실천한 사목자였습니다.

매년 1월 29일을 성인의 축일로 기립니다. 그분의 중보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알림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교인이 아닌 비정교인도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오늘(7/20)까지 받습니다.

-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일정: 7/25(금)-27(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8(월)-8/3(일): 초등학생 (참가비 18만원)  
8/4(월)-6(수): 중고등학생 (참가비 6만원)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0-073554  
(재단법인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영성의 샘터

## 자비의 하느님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나 유혹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형제에게 모세 사부가 대답했다.

“그대는 울면서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도움을 구하고 외치시오. 하느님께서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을 부르는 이들 곁에 계실 것입니다.”

